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삼성중공업, LNG운반선 2척, 4,082억원 수주

삼성중공업이 오세아니아 지역 선사로부터 LNG선 2척을 수주했다고 공시함. 총 계약규모는 4,082억원으로 인도기한은 2024년 2월까지라고 공시함. 해당 선박에는 스마트십 솔루션 '에스베슬'이 탑재돼 선박의 경제적이고 안전한 운항을 지원받게 될 예정이라고 보도됨. (선박뉴스)

한국조선해양, 5,820억원 규모 선박 7척 수주

한국조선해양이 총 계약규모 5,820억원 규모의 선박 수주 계약을 공시함. 현대삼호중공업이 오세아니아 소재 선사로부터 LNG선 2척 (인도기한 2024년 5월), 파나마 소재 선사로부터 LNG선 1척(인도기한 2023년 12월), 유럽 소재 선사로부터 컨테이너선 4척(인도기한 2023년 1월)을 수주하여 건조할 예정이라고 보도됨. (선박뉴스)

LNG운임, 2년 만에 최고

아시아 지역의 LNG수요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LNG운임 상승세가 겨울이 끝날 때까지 계속 이어질 전망이라고 보도됨. 지난 5월말만 해도 96,000CBM급 Tri-Fuel Diesel-Electric(TFDE)선의 스팟 운임은 일일 33,000달러로 2017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었으나 최근 하루 13만달러까지 상승했다고 보도됨. 시장에서는 용선 가능 선박조차 거의 제로 상태라고 보도됨. (선박뉴스)

LIG넥스원, 대우조선해양에서 해군 잠수함 개량 780억 규모 수주

LIG넥스원인 789억 원 규모의 해군 잠수함 장보고-1 성능 개량사업을 수주했다고 보도됨. 계약금액은 789억2,500만 원으로 LIG넥스원의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의 5.4% 수준이라고 보도됨. 계약기간은 2024년 12월 10일까지라고 보도됨. (비즈니스포스트)

두산중공업, 6,200억원 괌 복합화력발전소 수주…광 전력 40% 공급

두산중공업이 미국 괌에서 약 6,200억원 규모의 복합화력발전 프로젝트를 수주했다고 보도됨. 두산중공업은 한국전력공사-한국동서발전 컨소시엄과 '괌 우쿠두(Ukudu) 200MW급 복합화력발전소'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힘. 2024년까지 준공 예정이라고 보도됨. (머니투데이)

SITC orders up to 10 containerships worth a combined \$270m

SITC International Holdings가 중국의 Yangzijiang Shipbuilding에 2,600TEU급 컨테이너선 6척을 발주했다고 보도됨. 해당 계약은 추가 옵션분 4척을 포함하고 있다고 알려짐. 6척의 확정발주분의 인도기한은 2022년 9월에서 2023년 1월까지라고 보도됨. (TradeWinds)